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의회 모입니다(담임목사 은퇴건).
2.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기도온찬양대입니다.
3.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월 19일(월) ~ 26일(월)
4. 다음주 2부 예배후 정기제직회 모입니다.
5. 다음 주 오후예배는 신일비전현신예배로 드립니다.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김명자, 이은주
- 이사 : 정인택 이정숙 집사 - 대전시 대덕구 금강빌라 103호
- 개업 : 정인택 집사 휴먼플러스(631-7088)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7여전도회	남1, 2목장	제8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2월 행사

- 1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정기제직회
- 8일 : 각 기관 월례회
- 15일 : 목장현신예배
- 22일 : 정기당회

◆ 2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곽복님, 정영주

◆ 2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소재익, 이진퇴, 주정주, 하문숙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안 주 모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21장(구21장)
새267장(구201장)
주 품에 품으소서

기 도 1부/안재경 장로
2부/남동균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여호수아 3:1~6 (구 P322)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강을 건너는 사람들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620장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김명권 장로
2부 / 원용국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정 기 훈 강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이성중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고린도전서 12:1~11(신 P278)

찬 양 기도온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교회

찬 송 새543장(구342장) ...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강현선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453장(구506장) 다같이

기 도 성영옥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골로새서 3:12~17(신 P327)

말씀선포 설교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목장찬양 남1, 2 목장

축 도 다같이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3, 4 목장

✙ 다음주 기도 / 박영숙 권사

Since. 1978

No 4. 2015. 1. 25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영준
강 도 사 정기훈
전 도 사 김금분
장 로 김제곤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김신혜 윤현덕
주 김빛나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조성일
기 윤현덕 김성옥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 벽 기 도 회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새 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내주인/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우수,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르파트/전미숙
- 2. 미지리교회 :**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뽀엘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 원 선 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 아성은, 김지효
- 4. 기 관 선 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그룹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 서 선 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김금분,김영숙,김명화,김영민(함현숙),김춘복,남영순,박석문(정인선),박영숙A,박유연,송정화,신금순,안소연,이동근(박영숙),이선환,이인호(정지혜),이태근(엄경자),전금남,정기훈(최연옥),정길원(정채순),정태수(김정희),조성철(이해련),채재규,최영준(한은정),최원나,무영

✦ 감사헌금

김예림,김일창(고숙자),강철원(이지영),김금분,김영권(정영주),김영숙,김명화,김선숙,김영순,김재훈(한영실),김재근(한영실),김종남,김춘복,마주성(김선영),박성원,박석문(정인선),박순국(조수정),박은정,박진우(김해정),박혜진,성형건(윤송화),소재역(김미혜),신희영(김경숙),심하숙,안재경(정은숙),안주모(조양순),안진성,안효준,오민욱,오승엽(김영희),우성환(정해민),원용국(김복국),윤성욱(김신혜),이인호(정지혜),전완기,전정기,정기훈(최연옥),정길원(정채순),정영철,정영모(이윤희),정여원,정옥근(이경미),조성철(이해련),최나영,황돈수(박정자),무영

✦ 선교헌금

김금분,김영민(함현숙),김진승(윤라미),김춘복,박순국(조수정),박혜진,윤성욱(김신혜),이은화,정길원(정채순),정옥근(이경미),조성철(이해련)

✦ 신년감사헌금

유영성,전민규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 목적헌금

김종남

✦ 비전헌금

김춘복

✦ 일천번제헌금

김건국(김성욱,도희),남동근(윤현덕),남용민,안스디자인,안영원(영인,해린),안재경,이영일(홍은미),이재현(라희),이태근(엄경자),정은숙(안소연,진형,진성),정옥근(이경미)

✦ 직분자헌금

김금분,노시래(구남량),박근용(최운자),박석문,박순국(조수정),박영숙A,소재역,심하숙,임기준(성영국),원용국(김복국),이우영(김영자),조성철(이해련),주정주,무영

목장현황

2015.1.12~1.18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2	10,000	3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2	3,000	2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4	16,000	5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1	5,000	44	교 회
남2초원	3 김재근	교 회	1			교 회	여4초원	7 박복님	교 회	4	10,000	18	교 회
	4 김명권	교 회	3	15,000	27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0,000	45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근	교 회	2	5,000	40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3	6,000	1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20	교 회		10 정해민	교 회	1	5,000	5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3	5,00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60	교 회
	8 소재역	교 회	2	6,000	8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5	10,000	150	교 회
남5초원	9 이진석	교 회	1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4	10,000	9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1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20,000		교 회
여2초원(실바)	1 김명자	교 회	4	18,000	95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1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2,000	8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교 회
여2초원(실바)	3 권월성	교 회	5	16,000	332	교 회	여9초원	17 김혜정	교 회	4	8,000	15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70	교 회		18 엄검지	교 회	3	5,000	70	교 회

금주의 말씀

강을 건너는 사람들

여호수아 3:1~6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건너야 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한해를 사는 동안 건너야 할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이웃 등, 사람들이 건너야할 강입니다. 강은 삶을 힘들게 하는 공통물입니다. 강은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고민된 일들이요, 풀려지기를 원하는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1.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고 하였습니다.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른 곳에서도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2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케를 메고...” 또 7:16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리고 이번에는 8:10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접호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1:3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전의 땅인 가나안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일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이 비전의 땅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2. 언약케를 뒤 따라가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케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의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을 기필코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케를 보고 뒤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라, ‘다리를 건설하라’고 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언약케를 보고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케가 무엇일까요? 언약케 속에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 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싯단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케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민10:33-36). 또 행진을 하다가 쉬어갈 때도 언약케를 진 한 복판에 두고 그 주위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케가 앞장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약케가 앞장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3.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요단을 건너는 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해서 건널 것인가? 아니면 배를 건조해서 건널 것인가? 아니면 다리를 건설하여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책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하야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살기 거룩한가에 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님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전략과 방법론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결과 거룩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기사를 행하셔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4.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케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케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고 하였습니다. 또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케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단강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작 갈라져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단강물을 갈라 길을 만들어 놓은 후 건너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 의하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 즉 녹이 녹아 물이 많았다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 언덕에까지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다 벗고 맨 몸으로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돌멩이가 든 언약케를 맨 채로 강물에 뛰어 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은 바로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내 문제가 풀어집니다. 내가 들어가야 내 삶에 꼬인 문제들이 풀어집니다.